

#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3세대 하나로

## 자양 3세대복지센터 6월 22일 개관식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는 자양3세대복지센터(관장 장영심)가 6월 22일 개관식을 갖고 복지인프라 조성 및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기관의 메카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광진구(구청장 정송학) 자양동 자양3동에 들어선 자양3세대종합복지센터는 한 건물에 어린이집,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관을 갖춰 어린이·지역주민·어르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자양3세대복지센터는 135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09년 3월 착공해 2010년 5월 완공됐다. 자양3세대복지센터는 연면적 총 2997.24㎡ 규모로 지하 2, 지상 5층으로 건립됐다. 건물 구조는 지하 2층은 주차장, 지하1층은 강당과 식당, 지상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어린이집과 종합사회복지관, 3층은 종합사회복지관, 4~5층은 노인복지센터로 이루어졌다. 종합사회복지관은 2·3층으로 2층의 어린이집과 종합복지관의 상담실이 마련됐다. 3층은 프로그램 실 2개와 방과 후 교실, 피아노 교실, 상담실, 자원봉사 실 등이 설치됐다. 이곳에서



6월 22일 열린 자양3세대복지센터의 개관식에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정호 스님, 육수복지관장 상덕 스님, 태고종 법현 스님, 정송학 광진구청장, 추미에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개관을 축하했다.

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과 지역주회복지관은 2·3층으로 2층의 어린이집과 종합복지관의 상담실이 마련됐다. 3층은 프로그램 실 2개와 방과 후 교실, 피아노 교실, 상담실, 자원봉사 실 등이 설치됐다. 이곳에서

치해 노인들이 건강도 관리하고 다양한 취미활동도 즐길 수 있는 노인 전용 공간으로 꾸며졌다. 22일 개관식에 참여한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 실장 정호 스님은 "국가의 척도 복지수준에 달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복지는 중요하다"며 "자양3

세대복지센터에서 누구나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중단에서도 들겠다"고 말했다. 추미에 국회의원은 "3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이 공간에서 어르신 소외 문제 등이 해결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글= 박선주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 성문노인전문요양원 개원식

## 어르신들 생신잔치 석관실버복지센터



6월 22일 원주 성문노인전문요양원 개원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천태종복지재단이 직영시설로는 첫 노인요양원을 개원했다.

천태종복지재단이사장 정산·천태종 총무원장은 6월 22일 원주 성문노인전문요양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성문노인요양원은 국비 및 시·도비를 포함한 예산 25억원을 투입해 원주시 행구동 127번지 4885㎡의 부지에 2008년 10월 착공해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2495.99㎡ 규모로 완공됐다.

요양원에는 110명 정원의 2·3·4인실 요양실과 원콜전동목욕실 등을 갖췄다.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이 상주해 의료·영양급식·정서지원 및

지역사회협력 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개원 기념법회에서 "성문노인요양원은 천태종이 심혈을 기울여 설립한 첫 직영 복지시설이다. 앞으로도 진해에 노인요양원, 울산에 모자가정 복지시설, 부산에 부자가정 복지시설 등을 설립해 10년 안에 재단 산하 종사자 1만 명 규모로 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문노인전문요양원장 종제 스님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요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진각종(통리원장 혜정 정사)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 김기현)는 6월 24일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 중 4·5·6월에 생신을 맞은 어르신들을 위해 생신잔치를 열었다.

생신을 맞은 70명의 어르신들은 다함께 나와 생일상을 맞이했다. 생신잔치에 참여한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과 복지사들은 생신을 맞은 어르신들에게 생일축하 노래를 불러드리고, 직접 만든 천연비누를 선물로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문화재단의 문화 지원으로 '천년 가무학' 팀이 초청돼 어르신들에게 한국 무용, 민요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석관실버복지센터는 생신인 어르신들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친목도모 및 소속감 고취를 위해 매 분기마다 생신잔치를 열고 있다. 1분기에는 3월에 생신잔치를 열어 100여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했다.

김해성 홍보담당은 "생신잔치를 열면서 센터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 청소년 신행 플래너 '프로젝트 마하'

## 교법사단, 창립 제65주년 기념법회서 봉헌

청소년 신행 생활 플래너 '프로젝트 마하'가 제작·봉헌됐다.

조계종 전국교법사단(단장 이육태)은 6월 19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교법사단 창설 제65주년 기념법회에서 청소년 신행 생활 플래너 <프로젝트 마하>를 봉헌에 봉헌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종 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 이학송 불교교육연합회 부회장과 전국 종립학교 교법사, 동대부교관협의회, 동대부여고 수신회, 동대부중 보현회·바라빛회, 동대부여중연합회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교법사들이 청소년들의 신행과 학습을 돕기 위해 제작한 청소년 신행 학습 플래너 <프로젝트 마하>는 청소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 생활을 점검하고 공부하는 습



6월 19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열린 교법사단 창설 제65주년 기념 법회에서 권진영 교법사가 청소년 신행 플래너 '프로젝트 마하'를 봉헌하고 있다.

관을 들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제작됐다.

<프로젝트 마하> 집필·제작을 주도한 권진영 교법사(동대부여고)는 "포교 일선에 있으면서 불교를 어렵다 여기고, 학교생활과 동떨어진 것

이라 여기는 학생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쉽게 전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포교원장 혜종 스님은 "교법사들이 현장 경험을 토대로 청소년 포교를 위해 제작한 '프로젝트 마하'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일념으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해 온 교법사들에게 감사하다"고 법문했다.

이에 앞서 이육태 단장은 인사말에서 "교법사들은 불법홍포를 위해 일신을 아끼지 않아왔다"며 "교법사단 창설 제65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교법사단의 활동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학송 불교교육연합회 부회장의 정부 광동교 교장은 축사에서 "청소년 포교는 포교의 블루오션이라 불리는 군포교 이상으로 중요하다. 전국교법사단 창설 제65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교법사들은 학교에서는 좋은 선생님, 지역사회에서는 포교사, 불교계에서는 정크랭크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계종 전국교법사단은 뇌허 김동화 박사가 대구능인중 교장으로 부임한 1945년을 창립 시점으로 잡고 있다. 현재 11개 학교법인 25개 종립학교에서 32명의 교법사가 활동 중이다.

조동섭 기자

# ■ 청소년 신행 다이어리 집필 권진영 교법사

## "경쟁 아닌 자신의 꿈을 이루길"

"청소년 신행·학습 다이어리 <프로젝트 마하>를 통해 청소년들이 경쟁이 아닌 자신의 꿈을 이루는 보살이 되길 바랍니다."

동대부여고 권진영 교법사(사진)는 6월 19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열린 교법사단 창설 제65주년 기념법회에서 <프로젝트 마하>를 봉헌에 봉헌했다. 권 교법사는 1년 여 동안 <프로젝트 마하>의 집필·제작을 주도해 왔다.

"부처님 가르침이 소중한데도 청소년들에게는 학업이 더 큰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학습성적을 높이고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프로젝트 마하>는 부처님 생애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된다. 부처님이 탄생하며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하고, 열반하며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 말한 것을 예로 부처님은 자기창조와 주도적 삶을 살았다는 내용이다.

권진영 교법사는 "코칭 프로그램의 제1원리인 '누구나 꿈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부처 [一切衆生悉有佛性]

라는 불성론과 같다"며 "교육학적 용어들 다수가 불교적 용어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프로젝트 마하>에서는 '발원' 대신 '마중물'이라는 용어를 '참회'를 대신해 피드백(Feedback)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청소년들이 거부감 없이 자기의 소양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편집·제작된 것도 <프로젝트 마하>의 특징이다.

권진영 교법사는 "<프로젝트 마하>는 단순히 '공부해라', '노력해라'가 아닌 공부하는 이유를 깨닫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만들어졌다"며 "청소년들이 <프로젝트 마하>를 통해 자기발전 원리를 깨닫고 실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